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 GMI에서 여러 현지 목사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사역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의 목사님들을 성경 중심으로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설교학, 금요일에는 목회학과 교회행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선교사는 교회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오순절계통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는 합신에서 배운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사역은 빈민구제인데 어려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가족과 교인들에게 식료품과 옷,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사역은 각지방에 있는 지역목회자들을 모아서 일주일에서 4일 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끊어지고는 하고 있지요. 다들 그런가보다 살기에 저희도 이곳 상황에 익숙해졌네요.

요즘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가 1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주의 일을 하시던 동료분들이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남은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선교사역들을 추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가려하고 인도하신 만큼만 욕심내려 합니다. 그저 모든 상황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려 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아르헨티나 유성두 강지애 선교사 올림 -